

위, 상행결장, S자결장, 직장에서 병발된 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 1예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오희주* · 김국현 · 김태동 · 김성목 · 김준환 · 장병익 · 김태년 · 정문관

서론: 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multiple primary malignant neoplasia)은 한 개체에 서로 종속관계가 없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암이 동시에 혹은 시간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생원인으로는 가족력,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결함, 항암 화학 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포함한 의인성, 발암제, 식이습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호발 부위는 위, 자궁경부, 대장, 유방의 순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질환이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위유문부와 위유문전방, 상행 결장, S자 결장 및 직장에서 동시에 발생한 다발성 원발성 악성종양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6세 남자환자가 내원 3주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팽만감과 배변습관의 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소견은 없었고 신체 검사에서 경한 심와부 압통이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12,700/\text{mm}^3$ 혈색소 8.8 g/dL , 혈소판수 $476,000/\text{mm}^3$ 이었고, CEA 6.84 ng/mL CA19-9 24.52 U/mL , AFP 1.56 ng/mL 로 모두 정상범위였다. 상부 위장관내시경검사서 유문부에 다소 용기된 홍반을 동반하는 0.4 cm 크기의 궤양이 있었고, 위유문전방부위에 0.4 cm 크기의 붉은 색조를 동반한 다소 함몰된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조직검사상 중등도 분화도를 가지는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대장내시경검사에서는 상행결장에 허물한 점막을 동반한 표재성 궤양이 있었고, S자 결장에는 주변부가 용기된 지저분한 기저부를 가지는 궤양이 있었으며, 직장에 2 cm 크기의 반유경성 용종이 관찰되어 각각 조직검사와 용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상행결장과 S자 결장에서는 잘 분화된 선암이었고, 직장에는 선암을 동반한 관상 선종으로 진단 되었다. 환자는 일반외과로 전과되어 위아전절제술과 위공장문합술, 우측대장절제술, 전방절제술 및 방광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항암화학요법 시행후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색인단어: Multiple, Gastric cancer, Colon cancer